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 3일 각계 축하 속 아름다운 퇴임

보내는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면 떠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계승된 인사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행복했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중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퇴임식이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스님은 포교원장을 지냈던 5년 동안 임버릇처럼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끝도 포교’를 외쳤다. 그런 스님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단 내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부대중이 퇴임식장을 찾았다. 퇴임식장 밖에도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각 신도단체와 종무원들이 스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도 선보였다. 또한 혜총 스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은 영상 편지도 공개돼 스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은 영상 편지를 통해 “그동안 포교 발전을 위해 보여주시는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웅 스님도 “다방면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다. 앞으로도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총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포교원장에서 물러나도 다른 곳에서 원력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순안식 부회장과 조계종 홍보대사 산악인 엄홍길씨, 개교



11월 3일 퇴임식을 마친 혜총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맨 이수근씨도 영상 메시지를 전해왔다.

퇴임식 치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자승 스님이 중앙총회 의장이었던 5년 전, 스님은 혜총 스님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당시 혜총 스님은 포교원장 임명을 위한 중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총 스님은 “나는 포교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고 말했다.

다. 그리고 스님은 중회 만장일치로 제5대 포교원장에 임명됐다.

시간이 흘러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뒤 혜총 스님이 자승 스님을 찾아왔다. 총무원장이 새로 선출됐으니 포교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에게 임기 끝까지 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자승 스님과 혜총 스님은 종단 공식 행사를 위해 함께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 키가 큰 자승 스님은 혜총 스님보다 항상 몇 발짝 앞서 나갔고, 그 때마다 혜총 스님은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 천천히 가라”고 말했다. 이때 자승 스님은 걷는 속도가 아니라 종단 일을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처리하라는 경책으로 이해하며 가슴 깊이 새겼다.

자승 스님은 “스님은 포교원장 취임 후 종단 포교의 성숙과 제도약기를 이끌어 주셨다. 스님의 공적이 포교원을 넘어 종단의 건실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기에 아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회향에 큰 축하를 드린다”며 치사를 전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과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도 송사를 전했다. 김의정 회장은 “천진불과 같은 밝은 미소

와 함께 광명진언을 통해 지혜를 여는 가르침을 주셨듯이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희웅 단장은 “스님은 포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소양을 지도해 주셨다. 가르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치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포교의 현장에서 법륜을 굴리며 살아갈 것이라며 퇴임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포교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종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동참과 이해가 있어 가능했다”며 “신인 포교원장과 함께 미흡했던 부분을 개척하고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퇴임식을 마친 스님은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과 대한체육회, 군종교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또 스님은 그동안 종단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안국선원 도선사 화성 신홍사 한마음선원에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혜총 스님은 “이분들이 후원하고 동참해주지 않았다면 제5대 포교원의 종착점은 구현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치하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장 전문가 지지 통해 포교 전문화 이뤄내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동에 주력 포교 활성화 위한 종단제도 개선

혜총 스님은 항상 포교의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포교 현장을 지원하는 포교원’ (2006),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 (2007), ‘포교가 희망입니다’ (2008), ‘포교역량 결집의 해’ (2009), ‘포교역량 조직화의 해’ (2010), ‘전법지원의 해’ (2011)와 같은 독특한 슬로건을 매년 발표했다.

혜총 스님이 재임한 5년 동안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종단포교 제도개선, 전법중심도량제도 시행 등에 주력해왔다. 스님은 재임기간 동안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포교콘텐츠를 개발했다. 또한 종단기구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추진했고 포교전진대회, 연꽃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혜총 스님은 종단포교 제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사찰중심의 지역포교활성화,

신도교육 관련 제도정비, 각종 종법과 종령 제·개정을 완료했다. 포교결집에 이어 전법단 출범과 전법중심도량제도도 시행했다. 신법과 법회 소외지역의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지원했으며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전법중심도량 지정과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신도등록 사업 개편 및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 >신행생활공동체를 위한 신도멤버십 사업 체계를 확립 >각급 신도교육체계 정비 및 신도품계제도를 시행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지도사와 불교상담심리사 등 종단 포교자격제도를 확대하는 등 체육계, 한의계, 다문화가정 등 포교분야의 다양성을 이끌어 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60명 이상의 포교 현장 스님들이 전법단에 조직돼 활동하고 있으며 130곳 이상의 사찰이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됐다.

혜총 스님은 “포교 사업들의 원만한 시행은 종단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포교 현장과 사찰에서 함께 동참하고 지지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종단 포교를 개척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진심을 전하고 감동 주는 포교하겠다”

신임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제5대 집행부 성과 계승 통한 미디어·사이버·문화 포교 다짐

“28년 간 포교현장에 정진해 온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 은혜를 입으며 살아 온 모든 것을 이제 종단 포교로 보답하겠다.”

혜총 스님의 뒤를 이어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에 취임한 지원 스님의 각오다. 스님은 11월 3일 열린 혜총 스님 퇴임식에서 사부대중에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지원 스님은 “혜총 스님의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제6대 포교원 집행부에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제7대 포교원 집행부에 이어 줄 핵심방향으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제6대 포교원을 구상하면서 부부나 자녀의 위법망구 정신과 종단 포교의 희망 찾기, 포교 활성화를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스님은 “부부나 자녀의 위법망구 정신으로 포교원을 이끌어 갈 것이다.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정신으로 출가득도의 마지막 회향이라 여기고 혼신으로 정진하



겠다. 제5대 포교원의 성과를 자신으로 삼아 모든 사부대중에게 진심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포교로 종단 포교의 희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런 목표로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에 기반한 포교역량과 신도조직화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대와 사회 변화를 관통하는 미디어 포교와 문화 포교의 싹을 틔워 수도권 및 도심권, 지구촌 활성화를 새로운 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포교원 스스로 진심을 발휘해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동으로 화하고,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사이버, 문화포교의 싹으로 종단포교를 활성화 하겠다. 또한 자성과 쇄신결사 최일선에서 그 결실을 맺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회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11월 3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중들로부터 화환을 받고 있는 혜총 스님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